

보 도 자 료

이제는 **경제의 시간**



보도일시	2026.8.26.(수)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o	매수	1
담당부서	농수산물검사부 (동부농산물검사소)	부 장	도영숙 (031-8008-9800)					
		소 장	김운호 (031-8008-9760)					
		담당자	김난영 (031-8008-9761)					

경기도 유통 열대과일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

○ 2026년 안심지킴이 검사 129건 · 10개 품목 · 검출된 모든 성분은 잔류허용기준 이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소비자의 과일 선호 다양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국내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열대과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바나나, 키위,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총 129건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 소형마트,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유통 중인 열대과일을 수거해 잔류농약 475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일부 시료에서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아족시스트로빈, 보스칼리드, 사이프로디닐, 피리벤카브 등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국내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대상은 소비량이 많은 바나나(26건), 키위(26건), 망고(20건), 아보카도(17건), 파인애플(12건)을 비롯해 용과, 망고스틴, 파파야, 코코넛, 패션프루트 등 총 10개 품목이었다.

또한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열대과일 (118건)과 국내산(11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최근 열대과일 소비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입산과 국내산 열대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